



## 『2006년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탐방

“분석하고 평가하며 결핵관리 앞날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

글|서정원(대한결핵협회 홍보전략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협회는 작년 2006년의 국가결핵관리사업을 평가 분석하고 향후 주안점을 두고 결핵관리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2006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열었다. 각 시·도와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5, 26일 양일에 걸쳐 경상북도 경주시 현대호텔 컨벤션룸에서 개최되었다.

2006년도 결핵관리사업 우수 시·도에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북도가 그리고 우수 보건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보건소가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의 개회사, 김성규 대한결핵협회장의 축사 그리고 작년

도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주제발표, 그룹토의 및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팀은 작년도 평가분석을 통해, 현재는 내성결핵의 증가를 막기위한 새로운 국가결핵관리의 재도전기이며, 우리나라의 국가결핵관리체계가 민간의료부분이 제외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 병, 의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향후 우리나라 결핵퇴치사업 수행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세 미만의 비시지접종률은 75.7%로 신고 되었다고 한다. 선진국에 비해 결핵유병률이 높은 실정으므로 결핵예방 수단인 BCG예방접종은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결핵신환자발견 및 신고현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젊은 연령층에서의 최근 감염에 의한 발병양상은 젊은 연령층 사이에 새로운 결핵전염이 이루어질 정도의 충분한 전염성환자가 우리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류유진 결핵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결핵실상과 대책'이라는 발표를 통해 결핵이 많은 나라에서는 젊은 연령층에서의 감염에 의한 발병과 노년층에서의 과거 감염에 의한 발병이 같이 나타난다며,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될 때에는 지체하지

대회장을 가득 매운 350여명 각 시·도 결핵관리 관계자들





좌 참가자들이 국가결핵관리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그룹별 주어진 주제로서 열린 토의를 벌이고 있다.

우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이 2006년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다.

말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고, 의사는 이러한 환자를 볼 때 반드시 폐결핵을 의심하여 흉부 엑스선 검진을 하여 결핵의 유무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은희 부산광역시 결핵관리과장은 '중·고등학교 결핵관리' 주제발표에서 학교와 보건소간의 협조체계와 보건소 결핵관리요원에 대한 결핵역학조사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며, 학교와 학부모들의 결핵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오수연 결핵연구원 기술협력팀장의 '국내 소아에서 BCG백신 접종실태 및 감염률조사' 발표,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시스템(TB PACS)의 필요성을 강조한 배정임 조사연구팀장의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결핵에 관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PPM)의 중요성을 역설한 김희진 기술협력부장 및 고위험군 무료검진 시범사업에 대한 송하자 평창군 보건의료원 담당자의 주제발표가 각각 이어졌다.

4월 25일, 마지막 순서로 그룹별로 토의한 내용들 가운데 일선 실무에서 직접 필요한 세부사항들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종합토의 순으로 끝이 났다. 이로써, 최 일선 국가결핵관리사업 담당자들이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튼튼한 이론적 바탕과 함께 앞길을 기쁘하며 나아가는 중요한 평가대회가 된 소중한 기회였다. †